

창세기 읽기 열다섯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창세기 읽기 열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세기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실제적인 노아 홍수 이야기는 지금 여기 9절이지만 앞에 이야기도 사실은 다 연관되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볼 때 창세기 앞 대목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덩어리 혹은 두 덩어리입니다. 창조와 타락이요. 창조와 타락 처음부터 그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도 나오고 가인의 아벨을 죽인 이야기, 노아 시대의 그 부패한 이야기, 앞 시간에 봤듯이 하나님이 자기가 인간 창조한 것을 후회할 정도로 그 시대의 인간들의 악이 하늘에 달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의 세계에 대한 이해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일들은 벌어지니까요. 내전도 일어나고, 지금도 반복해서요.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참 내로라 하는 위인들 정치인들이 있어도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요. 거기에 전쟁이 벌어지면 돈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인류 역사가 어디로 갈지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물론 꼭 안에서도 선한 의지들이 모여서 새로운 걸 만들어 낼 수 있긴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미래가 밝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알 수 있고 성서도 우리 지금보다 훨씬 전 시대에 이야기를 담고 있으나 인간 삶의 중심을 뚫어 본 이야기라서 성서에 관점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어쩔 수 없습니다. 창조와 심판이요. 인간의 타락이요.

노아가 이제 등장합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죠. 9절부터입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인간이 악하다 오죽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내리셨을까? 혹은 봐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거야. 이렇게 위협할 수도 있겠죠. 저런 글을 쓰는 창세기 기자의 마음을 생각하면 짠하죠? 기분 좋아서 저런 글을 쓸 순 없잖아요.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대표자입니다. 노아만 어디 그렇겠어요? 노아만 의인이고 노아만 완전한 자라고 하긴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 흐름에서 보면 다른 사람을 다 부정한다 기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다는 것을 말하려고 노아를 대표로 내세운 겁니다.

이 노아 이야기가 끝나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족장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좀 빨리 좀 가고 싶어요. 제가 요 대목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저도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합니다. 사실적인 역사라기보다 근원이 된다는 뜻으로 원래의 원 역사라고 합니다. 독일어로 우어 게쉬히테 라고 합니다. 게스히테는 역사예요. 우어 ur 붙여서 원이 붙여요. 1장 부터 11 장 까지는 역사가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는 근원적인 관점 배워야 됩니다. 그 관점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게 이제 인류 역사에서 나타

나는 거죠.

11장까지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너무 오래 제가 질질 끄는 것 같죠? 그 이야기는 신화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설명하기도 좀 쉽지는 않아요. 12장으로 가면 됩니다. 빨리 12장 가야 되겠어요. 12장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거든요.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셈, 함, 야벳은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여기 5장 32절에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했는데 여기 또 반복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편집한 사람이 정리를 정확하게 안 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저런 게 고대 유대 사회에서 글쓰기 방식인지도 모르죠 했더니 또 하더라도 하나도 그게 수준 떨어지는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죠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셈, 함, 야벳 세 아들입니다. 세 명만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또 앞에서 제가 짚은 것처럼 다른 아담의 후손들 이야기해서 볼 때 자연스럽지 않죠. 최소한도 수십 명, 700년, 800년 동안 애기를 낳았으니까 100 명 이상 낳은 사람도 있겠죠. 신화적인 표현입니다.

11절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 한지라. 반복된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는 눈이 밝아진다는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선악에 대한 인식 능력을 얻게 된다는 유혹입니다. 피조물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안 돼요. 궁극적인 선과 악을 알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자기 자식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따끔하게 혼내는 게 아이에게 좋은지 아니면 위로하는 게 좋은 건지 그거를 사람은 판단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선과 악을 자기가 알고 싶다 알아야 되겠다는 유혹에 결국 넘어가는데 그 그게 이어져서 결국은 아 뻘스러워졌다 인간이. 그게 하나님이 보시죠.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이 늘 불어다녀요. 땅이 뭘 잘못입니까? 인간이 잘못이지. 땅의 피를 흘린 인간이 잘못이죠. 땅을 착취하는 인간이 잘못이죠.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부패했다는 말을 실제로 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땅 위에서 행하는 인간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인간을 애기하겠죠. 동물이라기보다.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땅을 멸하리라.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위기가 인간 종의 멸망을 불러올 결정적 계기일지도 모릅니다. 뭐 그게 실제로 벌어지기 전까지는 실감 약간씩 전문가들과 예 예민한 사람만 알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가 미지근 하다가 그럴 때 잘 모른다면서요. 그

러다가 물이 끓어도 그런가보다 하다가 거기서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슷한 비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호수가 있는데 그 연꽃같은거 그 우리의 떠 있는 풀들 있잖아요 그게 어떤 물위에 떠있는 잎이 하루에 두 장씩 늘어나요 배가 돼요 처음엔 한 장이었어요 이를 되니까? 두 장이 돼요 그래봐야 호수가 너무 넓으니까? 뭐 그러나 안 그러나 모릅니다. 호수를 반 채울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반이 남아 있는데 반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넓으니까? 하루만 지나면 그 반마저 아주 덮어 버리잖아요.

지구의 생태계라고 하는 게 그와 비슷합니다.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아직은 뭐 그래도 살 만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상하기 힘들어요. 예상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경각심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습니다.

이 땅에 가득 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땅을 멸하리라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 방주가 문제요 방주가 문제가 아니라 방주에 대한 해석이 문제요. 교회를 방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야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교회가 방주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죠.

방주를 만들 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구조적인 방법론이 나옵니다. 15절부터.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 규빗 너비는 50 규빗, 높이는 30 규빗이라.

이런 숫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간혹 뭐 해외 토픽 비슷하게 방주를 새로 짓겠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방주가 어디 아라랏 산인가 어디 나중엔 거기 갔잖아요. 홍수 끝난 다음에 그래서 그 방주를 찾겠다고 편딩인가 만들어서 갔던 사람들이 20 세기 후반에 제법 있었습니까. 튀르키예 어디 가 하는 거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수치도 조금씩 다르니까 1규빗이 몇 뭐 얼마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방주를 만들겠어요. 뭐 어떤 교회에서는 뭐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은 못 만들지만 지성소를 만들어 낸다 거나 그래서 뭐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했던데 지금 모르지만 20 년전쯤인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벤트성 일들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혹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긴 합니다. 이벤트 성으로 이제 그런 방주도 만들고 지성소도 만들고 선교 행사 해외 선교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그렇게 하면 헌금이 모이니까 그래서 그런 일에 호기심을 거두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은 제가 다 제가 냉소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경향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면에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계속 백화점 다니고 뭐 이 카드 긁고 하는 것으로 삶을 소비하는 행태와 얼마나 다를까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창을 내든 위에서 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창 중 아

삼층으로 할지니 내가 온 땅에 홍수를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저주 그쵸? 홍수 이야기는 여기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라 고대의 여러 다른 문명권의 구전과 문서의 단골 소재입니다. 바벨론 신화에는 아주 정확하게 나오지요. 당연히 나일강 문명의 이집트에도 대홍수 이야기는 많죠. 그러니까 저 노아 홍수로 세상 사람들이 다 멸절했다는 것처럼 저게 사실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저는 신화의 방식을 통해서 여기저기 많이 있었던 얘기인데 앞에서 창조 이야기 나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창조하는 것 이야기도 이미 바벨론에 있는 어떤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이야기처럼 이 노아 홍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고대에 여기저기 있었던 이야기에요. 그런 이야기를 차용했다고 해서 성서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18 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노아와의 새 언약. 아 하나님과의 약속 계약 언약에 근거하여 신앙이 형성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계속 그게 이어집니다. 여기에 노아 전승의 그 단초가 보여요. 앞에 나온 이야기에도 이 비슷한 그 뉘앙스의 표현들이 있을 까요? 지금 막 머리에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건 적어 두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요 대목에서는 분명합니다. 내 언약을.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약속한다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잖습니까? 소명이예요. 모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은 소명이죠. 소명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언약이에요.

그러니 내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했는데 제가 습관이 돼 갖고 새 언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에 나온 이야기들은 옛 언약 옛 약속 성경 자체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The Old Testament, Testament가 약속이라는 거니까 언약이라는 뜻이잖아요. The Old Testament, The New Testament, 새 알약이 입에 붙어 갖고 잘못읽었습니다.

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다른 식구들 안 불렀네요 친척이 있었을 텐데 안 불렀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왜 아무래도 그렇지 노아가 왜 자기 자식하고 며느리하고 아니면 데리고 들어가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뭐 친구들도 있고 했을 텐데 왜 그러지 그런 비판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죠.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약속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 세상이 아무리 타락

해도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합니다. 인간이 지구에서 멸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명을 보존하시겠죠. 그렇게까지 가면 너무 비약된 걸까요? 저는 뭐 그런 믿음이 성경에서 크게 벗어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은 인류가 멸절 되고 이후에 다른 어떤 것들로 대체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성서에 전체에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과 그 전망에서 볼 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인류 이후의 세계, 인간 종 이후의 세계가 이렇게 성경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거라 할 순 없어요.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생명 보존,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 신앙의 실제 내용 거예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저축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네요. 비축하라 하면 될 텐데 가져다가 모아 두라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편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이 간혹 가다 보면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을 종종 사용해요. 꼭 그 단어가 필요해서 가 아니라 약간 글 쓰기의 수준이 모자란 사람이 그 걸 교정한 것처럼 보여요. 혹은 글쓰기 수준이 세련되지 못한 사람이 쓴 글을 교정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으나 등한이 다루어서 그냥 옥의 티처럼 표현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나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기 까지가 하나님이 너에게 때린 명령이자 동시에 약속입니다. 두 가지 단어 기억해 두십시오. 명령과 약속은 같이 가는 거예요. 무조건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생명 보존입니다. 생명 보존. 호모 사피엔스가 끝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명을 보존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길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해야 되겠죠.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도록 하는 길이 뭔가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지금 마음대로 쇼핑하고 마음대로 쓰고 스치로폴을 잔뜩 내놓고. 그리고 온갖 그 비료와 살충제를 다 써서 농사를 지어 많이 생산해 낸 것을 또 동물과 가축에게 먹여서 많이 맛있게 먹고 사는 것에만 삶의 가치와 그 방향 목적을 둔다면 생명 보존은 취약해지는 거죠.

어떻게 정말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냐에 대한 심각하고 진지한 토론 연구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잘 방향 지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원로라고 하죠. 정신적인 어른들이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을 텐데 정치와 경제 라는 거인족같이 네피림이라는 단어 나왔죠. 거인족 힘에 짓눌려서 어른들은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말을 해봐야 전달이 되지도 않습니다. 상황이 만만치 않네요.

마지막 절입니다. 6 장 마지막 절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 하였더라 노아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 까지의 그 원

역사에서 아주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담이 첫 인간이니까 중요하긴 한데 그런데 그 타락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엉망이 되는 상태에서 그 생명 보존에 유일한 기회가 노아에서 현실화 된 거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구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노아 같은 한 두 사람에게 의해서 세상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한 노아. 다행입니다.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